

한국고용정보원,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 진출 돕는다

3일, 아동권리보장원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
한국고용정보원(원장 직무대행 신종각)은 9월 3일 아동권리보장원(원장 정익중)과 자립준비청년*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* 자립준비청년: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

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자립준비청년 대상 ‘찾아가는 상담’ 서비스를 확대하고, 맞춤형 정책 콘텐츠를 제작하여 자립준비청년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. 아동권리보장원은 지역별 전담기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‘찾아가는 상담’ 참여를 지원하고, 온통청년에서 운영하는 정책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홍보하기로 했다.

한편 자립준비청년 외에도 한국고용정보원은 고립·은둔 청년의 자립을 위해 ‘찾아가는 상담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 지난 8월 26일 서울 은평구 소재의 두더집* 회의실에서 고립·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▲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청년 지원정책 상담, ▲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활용한 진로상담, ▲진로·취업 관련 고민상담을 적극 지원하고, ▲입사지원서·면접 클리닉 등의 취업상담을 제공했다.

* 두더집: 사단법인 ‘씨즈’에서 운영하는 고립·은둔 청년 커뮤니티 공간

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“청년정책 포털인 온통청년을 통해 일반 청년 뿐만 아니라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까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”라며 “이번 업무협약 및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취약계층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라고 전했다.

담당 부서	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플랫폼팀	책임자	팀 장	김성두 (043-870-8313)
		담당자	대 리	임정빈 (043-870-8885)

<관련 사진>



※ 사진설명 : 8월26일 서울 은평구 소재의 두더집에서 한국고용정보원 상담사(우측)가 고립·은둔 청년(좌측)을 대상으로 '찾아가는 상담 서비스'를 제공하고 있다.

※ 9월 3일 아동권리보장원과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은 추후 기사단에 별도 송부 예정